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인사말씀



우리는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월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에서 2십만명에 이르는 이재민과 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더구나 한강변의 일산둑이 붕괴되어 삼시간에 평야와 가옥이 물바다로 변하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순식간에 가족과 재산을 잃고 깊은 실의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을 도와주자는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메아리쳐 413억원의 정성어린 성금과 각종의 연품 150만점(환가액 50억원)이 답지되어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뜨겁고도 아름다운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전통은 오늘날에도 연던히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협의회는 지난 61년 발족이래 재민구호를 위하여 국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기탁된 의연금 총 1천 5백억원과 의연품 1,400여만점(환가액 530억원)을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지구에 배정하였는바, 그동안 우리협의회에서 모집된 의연금품의 사용내역을 간추려 국민여러분께 보고 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20일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